



전북시민사회 단체가 8일 노동부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KT 상용직 장기투쟁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 근로시간 단축... 전북 기업 3곳 중 1곳 이상 대응 방안 찾지 못해

지난해 7월부터 300명 이상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내년 1월부터 종사자수 50인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북에서도 1400여개가 넘는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방침이다. 이처럼 근로시간 단축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기업들의 3곳 중 1곳 이상(35.0%)이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할 뚜렷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전주상공회의소가 8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시간 단축 관련 기업 의견조사에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 대응 실태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 발생하는 애로사항으로 기업들은 '외부 수요 변화에 대한

생산조정 능력 저하'가 우려된다는 응답이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규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8.8%)', 노사간 이해관계 충돌(21.2%), 구인난으로 인한 인력부족(12.6%) 순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응답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기 위해 '업무·작업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5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잇는 응답으로 '유연근로제 활용(26.3%)', 교대제 형태 변경(20.0%), 정부 지원제도 활용(15.0%), 신규채용(7.5%)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추가를 허용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응답기업의 52.5%로 가장 많

았으며, 이어 '탄력근로시간제 기간 확대(50.0%)', 연장근로수당 등 가산 임금 할증률 조정(28.8%), 처벌 규정 완화(8.8%), 특례업종 확대(7.5%) 순으로 조사됐다. 이선홍 회장은 "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회복의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시급 인상과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 등 노동관련 정책의 변화로 기업경영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차원에서 정책당국은 한시적 연장근로 추가 허용과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기간 확대 등 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 KT 상용직 문제 해결 촉구

### 전북시민사회 단체, 중간착취와 노조탄압 주장

전북시민사회 단체는 8일 노동부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KT 상용직 장기투쟁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전북시민사회단체에 따르면 KT협력업체와 KT원청의 중간착취와 노조탄압을 했다며 주장했다.

또한, KT는 일부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평균임금 미지급 등 인건비를 때먹기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원들에게는 일감을 주지않고 직원들을 위해 제공하던 기숙사를 빼돌렸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창업기업 판로개척과 직원복지,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LX-제이토드, 업무협약 체결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최창학)가 창업기업 판로개척과 직원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LX공간드림센터 입주기업 ㈜제이토드(대표 정인혜)와 손잡았다.



이번 협약에 따라 LX는 임직원들의 '플레이티카' 이용권과 대외홍보를 추진하며, 제이토드는 LX 임직원에게 플레이티카 전주점 시설이용료 30% 감면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플레이티카는 지난해 9월에 경기도 구리시에 1호점을 개점한데 이어 올해 3월에는 LX본사가 위치한 전주에 2호점을 오픈하며 인기를 끌고있는 실내용이식이다. 최창학 사장은 "제이토드는 공간정보 분야 창업준비를 준비하는 많은 예비창업자들의 롤모델이 될 것이다"며, "LX는 공간정보 분야 산업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공간드림센터에 입주해 LX로부터 창업에 필요한 원스톱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기업이다. 제이토드는 지난해 VR, AR 등 ICT기술을 접목한 스포츠 키즈파크 '플레이티카'를 런칭해 54개의 일자리 창출하고 연 매출 10억원을 달성하는 등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 전북농협, 카드 멘토링 발대식 가져... 활성화 다짐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장근)는 최근 지역본부에서 관내 영업점 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카드 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카드 멘토링 발대식을 했다고 8일 밝혔다.

멘토링 기법 노하우 공유의 시간을 통해 카드 사업 추진 활성화를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날 발대식은 최근 카드사업의 흐름과 전일 실적 상관없이 포인트 적립되는 올바른 '포인트 카드' 등 주력 추진 상품, 마케팅 트렌드에 대한 설명과 멘토-멘티의 우수사례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또한, 직원들은 공유한 마케팅 노하우를 직접 현장에서 고객에게 전달하여 전북 카드 사업 추진 활성화를 이끌 것을 다짐했다. 김장근 본부장은 "직원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업무능력 향상은 자연스레 사업추진의 결과로 이루어질 것이다"며, "마케팅 기법을 함께 나누는 교류의 장, 선후배 간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 전북우정청, 우편요금 내달부터 50원 인상

전북지방우정청(청장 전성무)은 우편요금이 5월1일 부터 현재 330원(25g 이하 기준)인 규격 우편물 요금을 380원으로 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4월25일까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내통상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전북지방우정청장은 우편요금 인상 배경은 매년 감소하는 우편 물량에

비해 인건비 등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편적 우편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서이고 2017년 이후 2년만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요금이 가장 낮은 규격 우편물 5g이하는 300원에서 350원으로, 25g이하는 330원에서 380원으로, 50g이하는 각각 인상된다. 특히, 우편물량은 전자고지서, SNS 등이 활성화되면서 지속적으로 감소

하고 있다. 또한, 우편물량은 2002년 55억통으로 최고정점을 찍은 후 2012년 46억통, 2015년 40억통으로 줄었으며, 지난해 36억통까지 크게 감소했다. 전성무 청장은 "우편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우편물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새로운 서비스 발굴, 집배·물류체계 효율화 등 경영혁신을 추진해 경영수지를 개선하는 한편 우편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농협, 이달의 우수 농협인상 시상

전북인삼농협 정현 과장,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공명 선거기여 공로 인정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최근 지역본부 정례대회에서 전북인삼농협 정현 과장(37세)을 '전북농협 4월 우수 농협인'으로 선정·시상했다고 8일 밝혔다. 전북농협에 따르면 정현 과장이 지난해 13일에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공명하게 치르는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으며 시상 사유를 밝혔다. 정현 과장은 그 동안 간선제로 실시되었던 전북인삼농협 조합장 선거 방식이 직선제로 변경됨에 따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진안군 선거관리위원회와 협조하여 김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대행위원회로 선정해 조합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조합원 대상 홍보활동과 후보자들의 결의대회를 하여 조합장선거가 깨끗하게 치러지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현 과장은 "전북인삼농협의 조합장선거가 처음으로 직선제로 바뀐에 따라 선거제도 변화에 따른 조합원들의 관심과 참여 계고를 가장 큰 추진과제로 여겼다"며, "농업과 농협의 발전을 위해 겸손한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4월 우수 농협인상 시상

전북인삼농협 과장 정현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